

# 품격높은 외국소설 풍성한 가을

레몽 장 · 줄리안 반즈 · 안토니스 사마라키스 · 아민 말루프 등 번역 소개

외국문학이라면 '고전'에 '명작'이라는 수식이 따라붙는 수세기 전의 작품이 고작이었던 출판가에 현대 외국문학이 풍성해졌다. 최근, 국내 독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외국문학이 많이 소개되어 독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 유럽의 현대작가들 대거 선봬

외국문학 소개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세계사는 '프랑스 현대문학선' 24번째 작품으로 레몽 장의 《카페 여주인》(이재룡 옮김)을 펴냈다. 세계사는 《조서》의 르 클레지오를 필두로 장 필립 뉘생 · 다니엘 살나브 · 조르주 페렉 · 미셸 폴로 등 현대 프랑스작가를 소개해 왔다.

레몽 장은 신선한 착상을 소설적 진실로 연결하는 힘이 돋보이는 작가로 평가받는데, 《카페 여주인》 역시 소설의 모티프가 기발하다. 생플로랭의 카페 여주인이 낯선 남자로부터 하룻밤을 자신과 함께 보내면 1만프랑을 지불하겠다는 편지를 받는다는 도입부는 독자의 흥미를 끌어당긴다.

프랑스어권의 문학작품은 인문학 분야 프랑스 출판물과 맞물려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벨라 B.의 환상》, 《쓰레기 왕》(이상 세계사) 등 레몽 장의 작품이 출간될 예정이고, 크리스티앙 보뱅 · 마리 르도네 · 자크 스테른베르 등 프랑스어권 작가들이 소개된다. 열린원 역시 마리 르도네의 《장엄호텔》, 나탈리 샤르트의 《황금열매》 등 프랑스어권의 작품을 내용을 예정이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은 D. H 로렌스 이후 문학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두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어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컬렉터》와 《마구스》로 낙인은 존 파울즈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김석희 옮김, 프레스21)와 매직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 줄리안 반즈의 《내 말 좀 들어봐》(신재실 옮김, 동연)가 그것이다.

《프랑스 중위의 여자》는 영국의 작은 해안마을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대영제국이 가장 융성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풍습과 정신을 정교하게 복원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독서량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인용, 복잡하면서도 빈틈없이 짜여진 구성은



영국의 리얼리즘적 전통을 뒤엎는 새로운 형식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존 파울즈보다 뒷세대에 속하는 줄리안 반즈는 《내 말 좀 들어봐》에서 진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포스트모던적 기법을 취하고 있다. 친구의 결혼식날 신부의 모습에 반해 친구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내용을 등장인물인 스튜어트 · 질리언 · 올리버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내용이나 주제보다는 이야기하는 방법, 즉 관점을 중요하게 다룬 셈. 이러한 형식은 진리의 양상이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는 현대사회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줄리안 반즈의 작품은 같은 출판사에서 《10과 1/2장으로 쓴 세계 역사》, 《플로베르의 앵무새》가 나와 있고 《태양을 바라보며》가 곧 출간된다.

## 그리스 · 중동 등 낯선 작가들도 소개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레바논과 그리스의 작품도 선보였다. 근대 이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리스와 중동의 역사를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자잘한 일상을 통해서, 또는 역사적 인물을 내세운 우화형식으로 펼쳐 보인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리스의 안토니스 사마라키스는 나치의 점령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통해 그리스의 현재를 보여준다. 《여권》, 《거부》, 《희망을 찾아서》, 《면도》(이상 최자영 옮김, 신서원) 등 4권으로 꾸며진 전집 가운데 《면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자서전》이 들어 있다. 여기서 사마라키스는 "작가는 ... 숨이 불어



왼쪽 위부터  
안토니스 사마라키스,  
존 파울즈, 레몽 장,  
아민 말루프, 줄리안 반즈.

있는 한, '소리없는 사람들', 낙오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의 작품관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외국여행을 떠나려다 정보기관의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회사원(《여권》), 호텔 방문 앞에 떨어진 쪽지를 보고 반독재투쟁단체의 싸움에 뛰어드는 모조보석 세일즈맨(《두 송이 카네이션》)처럼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마라키스는 나치의 그리스 점령기 동안 지하운동에 참여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를 향한 열정과 인간애가 가득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중동의 찬란했던 과거를 일깨우는 아민 말루프는 《사마르칸드》와 《타니오스의 바위》(이상 이원희 옮김, 정신세계사)를 출간했다. 그는 마니고 창시자인 마니의 삶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마니》 이후 중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동양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11세기의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얌을 소재로 한 《사마르칸드》, 1830년대 서구열강의 정치적 · 외교적 이권대결 아래 놓였던 레바논 신약지대를 배경으로 한 《타니오스의 바위》는 모두 중동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말루프는 신화를 사실적으로 가공하고, 박제된 역사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해 독자들을 낯선 세계로 데려간다.

작품 속에서 오마르 카이얌은 전설 속에서 걸어 나와 투르크의 술탄 밑에서 권력다

툼의 희생양이 된 니잠 엘몰크, 바위 요새에서 '여세신(암살자)'의 어원이 된 아사시운(암살자단)을 이끌고 요인을 암살하던 하산 사바흐, 셀주크 투르크의 3대 군주 말리크 샤 등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난다. 또 마론파 기독교도와 드루즈파 이슬람교도 사이의 분쟁으로 일어난 기독교도 학살사건을 중심으로 1861년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펼쳐진다.

## 교양과 재미 함께 느낄 수 있어

이밖에도 미지의 외국 문학작품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래소설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이탈리아 작가 이탈리아 칼비노의 작품선집이 민음사에서 나온다. 《존재하지 않는 기사》, 《나무 위의 남작》, 《반조가리 자작》 등을 9월말 출간할 예정이다. 또 《불확정성의 원리》(이재룡 옮김, 책세상)를 낸 미셸 리오도 주목할 만한 작가다.

이같은 외국문학의 활발한 소개는 반가운 일이다. 이데올로기 문체와 외국 문학사조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시비가 일고, 작품성과 무관하게 '잘 팔리는 책'만을 만들려는 국내 문학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어찌 수확을 논과 밭에서만 얻을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외국문학으로 풍성해진 서가에서 교양과 재미를 함께 얻는 독서경험을 수확해 보자.

— 이현주 기자